

동아시아 古典의 現在的 意味 探索*

— 東亞文化的 位相과 人間의 尊嚴을 의식하며

위행복**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古典의 再解析과 價値發掘
3. 東亞文化的 位相 回復
4. 동아시아 傳統文化和 現代 文化産業
5. 人文學의 本領과 人間 尊嚴의 回復
6.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2013년 6월 북경에서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人文紐帶 강화’의 개념과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의 운영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다시 2014년 7월에는 習近平이 한국을 방문해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2013년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한·중인문학포럼의 개최에 관한 협약이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되었고, 2015년에 그 첫 번째 한·중인문학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정례적 포럼을 시작하기 전인 2014년 12월에 상당수의 중국학자들을 서울로 불러 ‘한·중 교류의 인문학적 조망 — 이해의 증진과 교류의 활성화를

* 줄고는 2017년 11월 24일에 개최된 제3회 한·중인문학포럼 개막식에서의 기조발표문을 논문 형식으로 재구성한 결과이다.

**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 교수

위하여'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한·중인문학포럼'은 2015년 10월 30·31일의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제2차 한·중인문학포럼'은 2016년 11월 4·5일의 양일 동안 北京에서 개최되었는데, 각 회 포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제1회 포럼의 大主題 '한·중 인문교류와 문화정체성'은 한국측에서 제안하고 중국측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데, 각 분과의 세션별 주제까지를 포괄하여 살펴보면, 정례적 포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중 양국 인문교류의 과거와 현재를 살핌과 동시에 '상호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리를 다져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¹⁾

제2회 포럼의 大主題 '한·중 인문전통과 현대화'는 중국측에서 제안하고 한국측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데, '동아시아문화의 정체성 형성' 혹은 '새로운 가치와 질서의 구축'이라는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 주제 선정으로 파악된다.²⁾

제3차 포럼은 2017년 11월 24일과 25일의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주제는 '溫故知新 — 한·중 인문학의 역사와 미래'로 설정되었는데, 양국 인문전통의 현재적 의의와 미래적 가치 그리고 발전 전망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중인문학포럼은 두 나라의 인문학자들이 모여 그 연구성과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의 학문적 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인식의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유대를 강화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인문유대 강화'라는 개념의 의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문유대 강화'의 목적은 현재의 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양국의 인문학 혹은 문화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간다는 관점 위에 세워진 개념일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스스로의 고전과 전통문화를 어떻게 살려나가야 할 것인지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1) 魏幸復, 「한·중 인문교류의 현황과 전망」, 『中國語文論譯叢刊』 第41輯, 2017년, 200쪽.

2) 위의 책 201쪽.

2. 古典의 再解析과 價値發掘

우리는 先哲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古典을 통해 그들의 정신과 만난다. 그러나 고전으로 분류된 典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典範으로 유의미할 수는 없으며, 그 현재적 가치는 歷史的 權威에 의해 생겨나지 않는다. 고전은 후대를 사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만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經典化'는 오히려 고전의 생명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經典'으로 만들고 추종하는 대상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비춰 주는 거울'로서의 고전인 것이다.

이러한 古典讀法은 매우 '傳統的'이고 古典的인 방법이기도 하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명확하고 깊이 이해하기 어렵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³⁾는 말이나, "『書經』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서경』을 읽지 않는 것이 낫다."⁴⁾는 말은 비판적 성찰과 독창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의 실천적 예를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다. 孔子의 경우, 伯夷는 신념을 관철한 인물로, 柳下惠는 자신의 생각을 실천한 인물로 긍정했는데,⁵⁾ 孟子의 경우에는, 孔子의 평가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伯夷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음을, 柳下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곁들임으로써, 고전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실재를 보여주었다.⁶⁾ '禮'를 교조적으로 추종해서도 안

3) 學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論語·爲政』) (인용문 양쪽에 “ ”)

4) 盡信書, 則不如無書.(『孟子·盡心下』)

5) 스승님께서는 “자기 뜻을 굽히지도 않고 자기 몸을 욕되게 하지도 않았던 사람은 백이와 숙제로다.”라고 말씀하셨고, 유하혜와 소련에게는 “뜻도 굽히고 몸도 욕을 당했지만, 말이 운상과 들어맞고 행실이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사람뿐일 게다.”라고 일컬으셨다.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與.” 謂: “柳下惠·少連, 降志辱身矣: 言中倫, 行中慮, 其斯而已.” 『論語·微子』)

번역은 조명화의 『논어역평』(현암사, 2017년) 635쪽 참조.

6) 伯夷는 임금으로 모실만한 사람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벗으로 삼을만한 사람이 아니면 사귀지 않았다. 惡人의 조정에서는 벼슬하지 않고, 惡人과는 대화하지 않았다. …… 柳下惠는 못한 임금 모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지위가 낮아도 그 사람을 깔보지 않았다. 벼슬자리에 나아가면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고, 반드시 스스로의 원칙을 따랐다. 벼슬에서 내쫓겨도 원망하지 않고, 곤궁한 처지에 빠져도 煩惱하지 않았다. …… 伯夷는 속이 좁고 柳下惠는 엄격하지 못했다. 속이 좁은 것과 엄격하지 못한 것은 군자가 따를 바가 아

되지만 잘못된 통치를 방조해서도 안 된다는 맹자 스스로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輪扁斲輪'의 寓話도 실천적 깨달음이 결국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임을 알려준다.⁷⁾

서구에서는 絕對王政體制의 유지에 이용되던 『聖經』이 새롭게 해석됨으로써 서구의 근대시민사회를 출현시키는 이념으로 발전했고, 동양에서는 孔子의 학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專制君主體制를 개혁하는 이념적 근거로 삼았다. 고전들은 새롭게 해석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했던 儒家의 사상체계가 현재적인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분석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유가는 인간의 이성적·합리적 측면을 중시했는데, 유가적 가치가 현대사회의 도덕률 속에 편입되려면 신분질서를 강조하는 측면이나 '禮'를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批判이 隨伴되어야 할 것이다. 或如 유가의 사상 속에서 '反社會的' 요소가 발견된다면, 그것이 유가 본래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용과 왜곡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적 가치를 재발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가사상이 漢代 이후 변질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유가사상 자체에 문제의 실마리가 잠재해 있지는 않은가도 살펴야 할 것이다.

袁世凱·蔣介石·章士釗가 '尊孔復古'나 '尊孔讀經'을 주장했고, 한국에서도 朴正熙가 '고전읽기'를 장려했다는 史實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⁸⁾ 2016

니다. (伯夷, 非其君不事; 非其友不友. 不立於惡人之朝, 不與惡人言 …… 柳下惠不羞汚君, 不卑小官; 進不隱賢, 必以其道; 遺佚而不怨, 扼窮而不憫. …… 伯夷隘, 柳下惠不恭. 隘與不恭, 君子不由也. 『孟子·公孫丑上』)

7) 바퀴통을 파는데 험겁게 파면 집어넣기는 쉽지만 견고하지 못하고, 뽀뽀하게 파면 집어넣기가 힘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험겁지도 뽀뽀하지도 않게 파는 것은 손에 익은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요령은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을 아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고, 제 아들도 제게서 그것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斲輪, 徐則甘而不固, 疾則苦而不入. 不徐不疾, 得之於手而應於心., 口不能言, 有數存焉於其間. 臣不能以喻臣之子, 臣之子亦不能受之於臣. 『莊子·天道』)

8) 한국의 京鄉新聞 1970년 7월 14일자는 民族文化推進委가 KBS와 제휴하여 「고전을 읽자」는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 중이며, 독후감 모집·독서신문 발간·새마음 새뜻 갖기 글짓기 대회·독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2016년 11월 17일자 東亞日報

년 제2회 한·중인문학포럼의 ‘공통세션’에서 “유가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전통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한 曹秉漢 교수의 발언에 필자는 동의한다. ‘孝’가 마땅히 배우고 실천할 지순한 도리가 될 수도 있고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듯이, 전통으로부터 보편적 원리를 발굴해내는 것은 시대마다의 解析과 實踐인 것이다.

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 國學이 크게 관심을 끌면서 관련 TV강좌가 주목받고 전통문화 분야의 도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지식계 역시 중국의 ‘國學熱風’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⁹⁾ 비판적 의견이 없지도 않다. 文化保守主義를 비판하면서 유가 경전의 새로운 해석을 주장하거나,¹⁰⁾ 于丹·姚淦銘·易中天의 백가강단 강연에 내재한 ‘無政治’ 혹은 保守性을 비판하거나,¹¹⁾ 백가강단의 강연을 국가정책의 확산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¹²⁾ 등이 그 예이다.

는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부활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9) “중국의 유학부흥운동의 진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는 변화하므로 중국에서의 유학부흥운동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중국의 유학부흥운동의 성공은 갈수록 침체되고 후퇴하고 있는 한국유학의 부흥에 활력소로 작용할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梁承武, 『中國儒學復興運動의 發展과 展望』, 『艮齋學論叢』 12, 2011년, 183쪽)
- 10) “위단(于丹)의 『論語心得』은 400만부 이상이 팔려나갔다. …… 간양(甘陽)까지 가세하여 이른바 ‘유가사회주의공화국’을 주장했다. …… 친후이(秦暉)도 전통적인 유학에 근거하여 중국 사회의 새로운 재구성을 제시한다. …… 유학이 학문의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 공자를 철저히 사회개혁가로 재해석할 때 열린다. 위단처럼 공자를 탈정치화하는 방법으로는 곤란하다. …… 유학을 염두에 두되 유학을 넘어서는 담대한 創新이 있어야 한다.” (조경란,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 문화 - 신보수주의의 출현과 유학의 재조명』, 『중국근현대사 연구』 40, 2008년, 175-180쪽)
- 11) “중국 고대의 문화나 철학에서 현대성을 비판할 수 있는 자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진정으로 중국철학을 부흥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흔히들 유학을 필두로 하는 중국의 전통문화의 부활을 과거 마르크시즘이 차지했던 이념적 공백을 대신하는 중국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파악하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는데, 이는 물론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관변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춘 피상적인 견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함께 언급하고 싶다.” (황희경, 『중국 백가강단을 말한다 - 논어심득(于丹), 노자강의(姚淦銘), 백가쟁명(易中天)을 중심으로』, 『오늘의 동양사상』 22, 2011년, 133쪽)
- 12) “『百家講壇 - 唐宋八大家』 강연의 목적이 당송팔대가의 내용을 특정한 방향으로 재구성하여 국가의 정책을 전파하고 공감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 강연을 ‘唐宋八大家’라는 전통문화콘텐츠를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문화전략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百家講壇 - 唐宋八大家』 강연은 21세기 중국이 추진하는 민족주의 문

중국의 國學熱風은 국가적·민족적 자신감과 自國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고, 문화창달을 원하는 대중적 욕구의 발로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한국학계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고전을 계승하는 방법에 관한 토론이나 인문학의 地平을 열어가는 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한국 자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기되었다는 절실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人文學 熱風’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조성되었는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러저러한 이득을 챙기는 부정적 현상이 많이 노정되었다. 그리하여 젊은 인문학도들이 한국 인문학계의 문제점 전반을 통렬하게 폭로했으며,¹³⁾ 학계 바깥에서도 직설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은 국가 발전의 도구, 국민 계몽의 수단, 부가가치 창조의 전략이 되고, 기업에겐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의 방법론이 되며, 개인들에겐 성공이나 시험을 위한 처세술 및 자기계발의 이론이 되고 있지 않은가. ... 오늘의 인문학이 과연 배부른 돼지의 값비싼 취미인지, 배부른 돼지가 되기 위한 전략인지,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성찰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 인문서는 과잉이지만 인문학은 빈곤하다.¹⁴⁾

자본과 권력은 팽창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인문학은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영역을 담당해왔다. ‘人文’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학문의 근간을 이루면서 인간 존중의 원리를 탐구해 온 지적 영역인 인문학이 ‘국학열풍’ 혹은 ‘인문학열풍’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에 골몰하거나 本領을 소홀히 한다면 ‘熱風’이 오히려 인문학의 미래를 망칠 것이다. 양국 인문학계가 광범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화정책의 구체적 실천체이다. 이 강연에 대해서 고전인문 강연에 숨어있는 해석 내부의 정치이념을 가려내어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임춘영, 「백가강단 당송팔대가론의 현재적 해석」, 『중국학연구』 79, 중국학연구회, 2017년, 3-4쪽)

13) 최진석 등의 『불온한 인문학』(Humanist, 2011년), 오창은의 『절망의 인문학』(이매진, 2013년), 이원석의 『인문학 페티시즘 — 욕망과 인문의 은밀한 만남』(필로소픽, 2015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4) 이형석, 「인문학의 과잉, 인문학의 빈곤, '빈곤의 인문학」, 『헤럴드경제』, 2014.12.1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7000430&md=20141217102730_BL

통해 함께 '인문진흥'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다.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조화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¹⁵⁾ 권력이나 자본이 억압과 수탈을 저지르고 있을 때, 인문학으로서는 '無用'의 자리를 택하는 것이 '大用'을 달성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3. 東亞文化의 位相 回復

19세기 이후 한국과 중국은 공히 타율적 '近代化'를 경험했는데, 서구가 그들의 문화나 사회를 '進歩'의 準據로 내세우면서, 여타의 세계는 정체되거나 후진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인식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를 서구문화의 수입이나 이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서구중심주의적인 세계관 혹은 문화관을 극복하는 것은 양국의 인문학계가 지고 있는 현재적 과업이 된다. 서구중심의 관점을 극복해야만 동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규명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문화의 위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중적' 오리엔탈리즘의 重層構造 하에서 왜곡된 자아형성을 강요받았다. 서구에게 굴복한 일본은 明治維新 이후 '東洋'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오리엔탈리즘의 내용과 구조를 동아시아 세계에 적용했고, 西洋을 自己化함으로써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을 조작해 조선을 합병하고 대륙을 침략하는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東·西의 문화적 차이를 절대화하고 일본을 先進으로 받드는 인식을 事實처럼 받아들이는 무리가 없지 않았고, 최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에 이르기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작된 '植民地 近代化論'의 본질을 규명하고 植民史觀을 청산하는 작업이 더욱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는 일제의 강점이 남긴 잔재의 청산일 뿐만 아니라 오리엔탈리즘의 극복과정이기도 하다.

15)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사이를 택하겠다. 선비에게는 도덕적 신념을 품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힘든 일이다.(將處乎材與不材之間. 士有道德不能行. 憊也. 『莊子·山木』)

황태연: 중국이 12세기에 이미 보편적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세계 학계에서 거의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근대성의 기준으로 간주하는 요소가 뭐가요? 신분해방과 평등, 정치적 자유, 정치와 종교의 분리, 관료행정, 공무원 임용시험, 만민교육제도, 자유시장과 산업화, 종교적·사상적 관용, 혁명 개념, 제지·인쇄술의 발달에 기초한 문화·예술의 대중화 등인데 이런 것들이 극동 지역에서 이미 일찍부터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동의 근대적 요소가 극서 지역으로 전해져 17~18세기 서양 계몽주의와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와 대의제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는 대한제국이 '미개한' '야만'의 나라라는 전제 아래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당화를 위해 일본은 대한제국을 '무능의 대명사'로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

황태연: 대한제국은 기본적으로 항일투쟁을 위한 비상국가였지만 경제를 비롯한 근대화 개혁도 결코 뒤쳐지지 않았습니다. …… 조선은 1820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로서 중국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3위 국가였습니다. …… 1911년에는 국민소득 815달러에 달해 중국(1913년 552달러)과 인도(1911년 691달러)를 제치고 일본(1911년 1356달러)·필리핀(911달러)·인도네시아(839달러)에 이어 아시아 4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매디슨의 이 통계는 1900~1901년부터 개시된 실질임금 상승추세에 의해서도 뒷받침됩니다.¹⁶⁾

동아시아의 전통이 근대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자체적으로 풍부히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동아시아의 '現在'가 형성됨에 있어 서구의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東亞 스스로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獨自의 近代'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서구 중심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의 정체성과 전통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스스로의 知的·文化的 전통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방기하고, 스스로의 전통과 문화를 서구의 잣대로 재단하는 오리엔탈리즘이 완전히 불식되지 못한 것이다. 문학작품을 비평할 때 서구에서 발전한 문예사조나 비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고전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때로는 서구적

16) 이태진 등, 「'망국 책임론'프레임에 갇혀 비난과 매도 일색... 대한제국은 결코 무능하거나 자멸하지 않았다」, 『중앙선데이』 552, 2017년 10월 8일자, 4면.

<http://news.joins.com/article/21993054>

평가기준이 요구하는 요소를 어느 정도 갖춘 작품에 대해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인문학은 '自國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문화권과 국가에 따라 인정받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이 동아시아문화의 위상 확보와 오리엔탈리즘 극복에 앞장서는 것은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東亞의 사유방식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東亞의 脈絡에서 東亞文化의 산물을 解讀하는 체계를 세워가는 것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정당한 읽기'일 것이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읽기'를 이루어낸 후에 他者에 대한 '올바른 읽기'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원리와 방법이 정립된다면 동아시아 세계 내의 상호 교류는 평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고, 동아시아 문화의 위상 확보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거대한 중국 앞에서 '中華' 혹은 '小中華'의 세계관을 경험했고, 지금도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국은 華夷觀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문화대국 논리에 흡인당할 위험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중국이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문화를 역사적으로 지켜왔고 지금 그것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⁷⁾

중국 지식인 사회가 발신하는 '보편 가치' '보편 문화' '중국 모델' '중국적 표준' 혹은 '북경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北京共識)'와 같은 개념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자신들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신형대국'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 중화 중심의 평화 질서, 패도(霸道)가 아니라 왕도(王道)의 대동세계, 말하자면 단순하게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부강한 나라, 그래서 세계의 보편가치를 창안하고 이를 이끌어 나가는 대국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17) 백영서, 「인문공동체와 가치동맹의 거리」, 2013년 6월.

<http://blog.naver.com/indrasky/80192133243>

18) 전인갑, 『현대중국의 제국몽』, 학고방, 2016년, 329-330쪽.

중국의 학계에서는 자국이 추구해야 하는 '문명'의 핵심가치로 '普遍'이라는 이념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許紀霖은 경제적 '부강'을 넘어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문명을 창출할 때만 중국이 진정한 세계적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甘陽은 역사적 연속성과 특수성에 기반을 둔 문명을 중국의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이를 핵심적 가치로서 중국 고유문명의 재조명을 제시했다.¹⁹⁾ '文明'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중국의 '傳統'에서 '普遍'을 찾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탐색이 동아시아문화의 위상강화와 오리엔탈리즘의 극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의 인정이 오리엔탈리즘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普遍性'과 '特殊性'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東亞文化의 위상회복이 달성될 수 있어야만 오리엔탈리즘의 '동아시아적' 형태였다고도 할 수 있는 화이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진정한 '보편'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동아시아 傳統文化와 現代 文化產業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고 생산과 소비가 대량으로 이뤄지는 상황 하에서 문화도 이미 대중화되고 산업화되었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여가의 확대와 더불어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창구효과(Window effect)를 통해 다양하게 변형되고 재활용되는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의 특징을 지닌 문화산업은 기술과 매체의 발전에 따라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산업은 그 市場이 세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파워와 국가브랜드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21세기는 문화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되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다"라는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19) 송인재, 「문명의 발견과 해석, 그리고 중국의 비전」, 『유교사상문화연구』 48, 2012년, 169-194쪽.

발언처럼 문화산업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이다.

胡錦濤 정부 이래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문화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왔고, 국가경제에서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는데, 문화상품의 수출 역시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에 이미 중국은 세계 최대 문화상품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유네스코가 10일 발표한 소속 통계연구소의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2013년 문화상품 수출 총액이 601억 달러에 달해, 제2위인 미국의 279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으며, 세계 최대 문화상품 수출국이 되었다.²⁰⁾

한국의 경우,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문화산업이 평균 4.6% 성장했고 그 수출액도 평균 7.5% 성장했는데²¹⁾, 최근에는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성장을 촉진시키는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²²⁾하는 정부정책 변화의 기반 위에서 한국 문화산업의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시대인 지금도 동아시아의 대중은 스스로의 전통적 幻想敍事에 매료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傳統敍事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꾸준히 재생산되어 왔고, 모바일 게임에 이르기까지도 고전에 기반을 둔 상품들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져서 대중의 대대적 환영을 받은 敍事도 전통에 바탕을 둔 경우를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의 두 달에 걸쳐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는 한국의

20) 聯合國教科文組織10日發布的其數據研究院的一份最新報告顯示, 中國2013年文化產品出口總值達601億美元, 高出排名第二的美國279億美元一倍多, 成爲全球文化產品最大出口國。(中國成文化產品最大出口國, 2013年總值601億美元), 『中國新聞網』, 2016년 3월 11일자. <http://finance.chinanews.com/cul/2016/03-11/7792727.shtml>

21) 김효근, 『대중문화와 창의(創意) 산업 — 위기에 바친 손오공의 여의봉』(『제10회 한중인문교류정책포럼' 자료집』, 2016년) 참조.

22) 『김상조 공정위원장 “한국경제, 신산업성장 촉진시키는 혁신형 경제 전환 필요”』, 『폴리뉴스』, 2017년 9월 15일자.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28920>

전통적 敍事巫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화상품으로서,²³⁾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에는 ‘진주를 눈물로 흘리는’ 鮫人의 형상²⁴⁾이 등장해 주목받았다. 또한 동아시아 바깥의 문화시장에서도 아시아의 원천소스(original source)들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西歐의 소재만을 다뤘던 미국의 제작사들 역시 중국의 콘텐츠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출시했는데, ‘쿵푸팬더(Kung Fu Panda)’의 경우에는 2008년 2011년 2016년에 연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浮上和 함께 이곳 동아시아가 원천소스의 출처와 문화상품의 소비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016년에 제작되어 자국 내에서는 흥행돌풍을 일으켰던 중국의 애니메이션 ‘大魚海棠’은 다양한 고전들과 전통미학이 문화산업의 창조적 源泉으로 매우 유효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 작품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물고기와 새의 分別智를 무너뜨림으로써 絶對自由와 境界超越을 추구하는 『莊子·逍遙遊』의 解體的 세계관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인물들의 동작과 언어를 통해 중국 전통예술의 ‘意境’을 보여주었다. 작품을 관통하는 농후한 중국적 색채를 통해 중국의 美的 전통이 현대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런데 서구는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을 선전하는 문화상품을 집요하게 세계시장으로 내보내고 있다. 필자가 관람했던 영화의 경우, ‘반지의 제왕3: 왕의 귀환(The Lord of the Rings: The Return of the King, 2003)’의 騎馬部隊와 코끼리 부대 전투 장면은 알렉산더(Alexander)에 대한 찬미와 아시아에 대한 ‘惡魔化’였다. 오리엔트 지역을 무대 삼아 오리엔탈리즘을 注入해오던 ‘미이라(The Mummy)’ 시리즈가 ‘미이라 3: 황제의 무덤(The Mummy: Tomb Of The Dragon Emperor, 2008)’에서는 무대를 아시아로 옮기더니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모독을 가했고, 북경올림픽 개막 1주일 전인 2008년 7월 30일에 영화를 개봉

23) 박재인, 「드라마 ‘도깨비’와 고전서사의 관련성 및 그 스토리텔링의 의미」(『인문과학』 65, 2017년) 참조.

24) 鮫人은 물고기처럼 물에서 살았는데, 끊임없이 배를 찢다. 진주를 눈물로 흘릴 수 있었다. (有鮫人, 水居如魚, 不廢織績, 其眼泣, 則能出珠.), 『搜神記』卷十二.

<https://baike.baidu.com/item/%E9%B2%9B%E4%BA%BA/3813051?fr=aladdin>

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제작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300:제국의 부활(300:Rise of an Empire, 2014)'은 마치 오리엔탈리즘의 교과서 같았다. 2016년 말에 實寫映畫(live action film) '물란(Mulan)'의 주인공이 백인남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화이트 워싱'²⁵⁾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²⁶⁾ 오리엔탈리즘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東亞文化를 선양하는 東亞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웅변해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傳統敍事가 문화콘텐츠의 寶庫로 부상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 東亞의 소재를 東亞에서 문화상품으로 가공하고, 그리하여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東亞文化의 위상 회복을 함께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人文學의 本領과 人間 尊嚴의 回復

과학기술의 발달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 그러나 노동의 축소는 동시에 불평등을 증가시키거나 소외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자동화의 혜택을 소수가 독점할 수도 있으며,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정보기술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25)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 백인 배우가 동양인인 것처럼 연기하거나 동양인 역할을 백인으로 바꾸는 것을 뜻하는 용어. 화이트워시(Whitewash)는 본래 더러운 곳을 흰색 페인트로 덧칠하거나 결점을 숨긴다는 뜻으로, 백인 배우가 아시아인 역할을 맡아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08548&cid=43667&categoryId=43667>

26) 중국 여성인 물란이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해 훈족의 징집 명령에 응하면서 강한 여전사로 성장한다는 것이 본래의 스토리다. 하지만 여기에 원작에는 없던 백인 남성이 나와 물란의 여전사 이야기보다는 아시아 여성과 백인 남성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스포일러들이 등장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물란 영화 제대로 만들어라”...美 온라인 청원 봇물』, 『아시아경제』 2016년 10월 12일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215170778842>

* 木蘭 역에 중국 배우 劉亦菲를 캐스팅했으며, 디즈니가 출연 배우 전부를 중국인으로 캐스팅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2016년 12월 1일에 한국의 매체에 게재되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953575&memberNo=32660183&vType=VERTICAL>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가 발표한 「2015년 세계 부에 관한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 2015)」에 따르면 전 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상위 1퍼센트의 부자에게 귀속된 반면, 전 세계 인구 하위 50퍼센트의 자산을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부의 1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 소득층에 걸쳐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획기적으로 빈곤층을 줄인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 예로, 중국의 경우 1980년대 약 30 정도였던 지니지수(Gini Index)²⁷⁾가 2010년 45로 상승했다.²⁸⁾

기술발전의 열매를 고루 분배할 사회구조의 창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오히려 毒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기술의 발달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만들 인문학적 대안의 제시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세상을 추구해 왔지만, 配慮와 平等의 이념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社會的 安全網'의 구축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때가 된 것인데, 한국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이나 중국정부의 '사람 위주(以人爲本)'와 '지속가능한 발전(可持續發展)'의 방침은 시대의 요청에 선도적으로 부응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2017년 유엔총회의 주제 '사람을 근본으로(Focusing on people)'도 동일한 관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압축적 고도성장으로 인해 한국에는 지금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 지난 정부 때 한국에서는 자기 나라를 '地獄'으로 自嘲하는 '헬조선(hell 朝鮮)'이라는 용어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되기도 했었는데, 중국 역시 유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와 소외의 경감, 사회적 배려와 국민복지의 증진 등등 정부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共同體 意識의 高揚이나 道德性의 回復과 같은 인문소양의 확산이 수반되어

27)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28)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지음,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016년, 149쪽.

29) '以人爲本'과 '可持續發展'은 호금도에 의해 2003년 7월에 발표된 '科學發展觀'의 내용이다.

야 할 것이다.

인문학은 인간존중의 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며, 東亞 지역의 인문학은 애초부터 ‘調和’와 ‘共存’의 미학을 추구하여 왔다.

諸侯와 大夫는 가난한 것을 걱정하기 전에 고루 분배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적은 것을 걱정하기 전에 통치자를 지지하지 않을까를 걱정한다. 고루 분배하면 가난이 없어지고, 세상이 조화로우면 백성이 줄어들지 않으며, 백성이 통치자를 지지하면 나라가 안정되기 마련이다.³⁰⁾

개성을 중시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서구적 방식이라면, 조화를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集團的 關係網 속에서 인식대상을 파악하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동아시아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인들은 ‘집단 속의 좋은 구성원’이기를 추구하고 겸양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높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오늘날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동양의 방식이 개인의 주체적 선택이나 자유의지를 상대적으로 홀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 점을 경계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적 가치관을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의 원리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배려와 조화가 절실한 지금의 시대는 동아시아의 전통으로부터 많은 원리를 발굴할 수 있다.

近代 이후 인류사회가 이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물질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평등의 신장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진보에 기여할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인문학이 발전되었고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적 경제적 위치는 우수한 文化的 底力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H. Maslow)에 의하면 인간은 ‘자아실현의 욕구’나 ‘존경의 욕구’와 같은 고차원의 정신적 요소에 의해 창의력을 자극 받고 또한 숭고한 행동을 취하는 존재이다.³¹⁾ 그렇기 때문에 높은 단계

30) 有國家者, 不患貧而患不均, 不患寡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論語·季氏』)

31) 『시사상식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7550&cid=43667&categoryId=43667>

의 文化를 가진 국가나 사회가 더 평등하고 발전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미래의 세계에서는 '인간다움'의 定義가 변화할 것이고, 인류는 '삶의 의미와 가치'의 창출에 훨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를 토론하는 인문학의 省察과 實踐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自尊心과 希望이 국가성장의 필수적 요소이고, 自由와 民主와 平等 그리고 人間尊重의 이념을 구현하는 나라가 먼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다면, 인문진흥이야말로 말로 선진국 진입의 선결요건이 될 수 있다. '知行合一'의 명제는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성찰은 의미가 없음을 알려준다. 제2차 한·중인문학포럼에서의 "운동성을 상실한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라는 林燦澤 교수의 발언 역시 같은 의미였을 것이다.

'人乃天'의 원리를 창출했던 한국에서 1년여 전에 발생한 '촛불혁명'은 인문학의 축제로 평가할 수 있다. 諧謔과 諷刺가 수반된 현장에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문학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해방시키고 살찌운다는 점을 증명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이 한국의 촛불혁명 시민들에게 人權賞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한국인들에게 '촛불혁명'은 積弊를 청산하고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스스로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봉건적 잔재를 털어내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촛불혁명 1주년을 맞은 무렵의 조사를 통해 다수의 한국인들은 변혁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의·청렴·성실·신의·배려·책임 등등 和諧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신적 요소들은 인문학의 영역이며, 이는 東亞文化의 전통적 덕목들이기도 한다. 어진 사람이 정치를 담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며, 흠치거나 빼앗지 않고 신의를 지키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공평무사한 '大同'의 세계는 2천 년 전부터 꿈꾸던 세상이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는 理想世界가 大同世上이라면, 그러한 세상은 他律的 制裁를 초월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고, 인문학이 그 과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유가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해왔기 때문에 西勢東漸의 조류가 닥치자 중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유가적 전통에 그 책임을 물으려고 했고, 서양학자들 역시 아시

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한 원인을 유가에서 찾으려 했다. 한국에서도 90년대 후반에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³²⁾라는 책이 출판되는 등 儒家批判의 조류가 강하게 형성되었다. 그런데 중국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내자 이제는 유가적 문화전통을 발전의 動力으로 설명해내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가나 도가 등의 전통적 사상체계 속에 현대문명의 문제들을 해결할 답이 오롯이 갖춰져 있는 듯이 논의되기도 한다.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회적 조건 하에서 형성된 특정 思想流派나 典籍에 모든 답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神祕化와 絶對化의 오류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 나가는 말

古典은 본디 후대인들의 평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상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시대나 지역마다의 끊임없는 재해석과 가치 발굴을 통해 그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經典化’나 ‘絶對化’는 오히려 고전을 소멸시키는 과정이 되기 마련이다. 儒家의 경우, 그것이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회에서도 빛을 발할 덕목들을 담고 있는 사상체계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이 형성되던 시기의 제반 환경으로 인해 간과해서는 안 될 한계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고전의 현재적 의미와 가치는 부단히 재형성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결여되면 고전은 ‘경전화’와 ‘절대화’의 외피가 씌워진 채 인간을 억압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으며, 曲學阿世를 통한 私慾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한국과 중국은 타율적 ‘近代化’를 경험했는데, 오늘날의 고전 연구는 오리엔탈리즘의 극복과 동아시아 문화의 위상 회복이라는 과제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서구중심적인 세계관의 극복은 동아시아 문화전통의 우수함을 규명할 뿐만 아니

32) 김경일 저, 바다출판사, 2001년.

라, 인류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東亞의 사유방식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東亞文化의 산물을 올바르게 解讀하는 체계를 세워야 하며, 한중 양국의 인문교류에 있어서도 상호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보편'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과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자긍심의 회복과 더불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大衆文化의 시대를 맞아 문화는 산업과 긴밀히 결합되었으며, 문화산업이 국가의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비야호로 동아시아의 傳統敍事가 문화상품의 원천 소스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동아시아가 문화상품의 소비시장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문화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

고전 연구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신장하는 인문학 본연의 영역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으며, 인문학은 기술발전의 열매를 고루 분배할 사회구조의 창출과 인간의 존엄 수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調和'와 '共存'을 추구하는 사유 체계와 解體와 顛覆을 꿈꾸는 사유체계가 함께 발전해 온 東亞의 傳統이 미래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인간의 존엄성 수호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參考文獻〉

- 전인갑, 『현대중국의 제국몽』, 서울, 학고방, 2016년.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지음,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현재, 2016년.
 이원석, 『인문학 페티시즘 — 욕망과 인문의 은밀한 만남』, 서울, 필로소피, 2015년.
 오창은, 『절망의 인문학』, 서울, 이매진, 2013년.
 최진석 등, 『불온한 인문학』, 서울, Humanist, 2011년.
 魏幸復, 「한·중 인문교류의 현황과 전망」, 『中國語文論譯叢刊』 第41輯, 서울, 中國語文論譯學會, 2017년.
 박재인의 「드라마 '도깨비'와 고전서사의 관련성 및 그 스토리텔링의 의미」, 광주, 『인문과

- 학』 65, 2017년.
- 임춘영, 「백가강단 당송팔대가론의 현재적 해석」, 『중국학연구』 79, 서울, 중국학연구회, 2017년.
- 김효근, 「대중문화와 창의(創意) 산업 — 위기에 바진 손오공의 여의봉」, 『제10회 한중인문교류정책포럼 자료집』,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년.
- 백영서, 「인문공동체와 가치동맹의 거리」, 2013년.
<http://blog.naver.com/indrasky/80192133243>
- 송인재, 「문명의 발견과 해석, 그리고 중국의 비전」, 『유교사상문화연구』 48, 서울, 유교사상문화연구소, 2012년.
- 梁承武, 「中國儒學復興運動의 發展과 展望」, 『良齋學論叢』 12, 서울, 良齋學會, 2011년.
- 황희경, 「중국 백가강단을 말한다 — 논어심득(于丹), 노자강의(姚淦銘), 백가쟁명(易中天)을 중심으로」, 『오늘의 동양사상』 22, 대구,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11년.
- 송진영, 「서유기 현상으로 본 중국 환상서사의 힘」, 『中國語文學誌』 제33집, 서울, 중국어문학회, 2010년.
- 조경란,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 문화 - 신보수주의의 출현과 유학의 재조명」, 『중국근현대사 연구』 40, 서울, 중국근현대사학회, 2008년.

〈Abstract〉

Exploration of the Present Meaning of East Asian Classics
— For the Status of East Asian Culture and Human Dignity

Wee, Hang-Bok

The Classics are made by the evaluation of later generations and maintain their values through continuous reinterpretation and discovery of the new meanings over times and regions. For this reason, 'Worshiping' or 'Absolutization' can rather annihilate the Classics, and sometimes even suppress humans, or turn them into the ways to making money.

Korea and China have experienced "Modernization" in a passive way, hence

should always keep in mind the mission of overcoming Orientalism, as well as restoring the status of East Asian culture. Overcoming the western-oriented view of the world can contribute not only to the excellence of East Asian cultural tradition, but also to the universally applicable value to human society.

Studies on Classics and traditional cultur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economic influence of Cultural Industry. In the era of Popular Culture, culture is closely integrated with industry, and Cultural Industry is becoming a significant factor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Cultural Industry is necessary in order to overcome Orientalism.

The Research on Classics ought to pay most attention to the field of Humanities; the most fundamental field of defending and raising status of the human dignity. The Humanities in East Asia has been pursued the aesthetics of 'harmony' and 'coexistence'. Therefore, the cultural tradition of East Asia is capable to contribute on building 'social safety net',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Key words: Korea-China Humanities Exchange, reinterpretation of classics, East Asian traditional culture, culture industry, Orientalism, human dignity

이 논문은 2018년 1월 11일에 접수되어 2018년 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